

# 광주 출신 골퍼 김민규 '10대 돌풍'의 핵이 되다



김민규가 19일 충남 솔라고 컨트리클럽 라고 코스에서 열린 KPGA 투어 최종라운드에서 세컨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KPGA 오픈 연장끝 아쉽게 준우승  
2개 대회 연속 2위... 존재감 알려

7살 때 입문 '골프 신동'으로 불려  
평동초 시절 8개 대회 우승 휩쓸어  
사업 실패 부친 택시 운전하며 뒷바라지  
역경 이겨내고 골프계 파란 일으켜

광주 출신 '소년 골퍼' 김민규(19)가 한국프로골프(KPGA) '10대 돌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김민규는 19일 충남 태안 솔라고 컨트리클럽 라고 코스(파72·7263야드)에서 열린 KPGA 오픈(총상금 5억원)에서 이수민(27)과 연장 혈투 끝에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민규는 19일 오후 6시경, 김민규는 정승환(36), 이경준(25), 박상현(37) 등 '형님'들을 제치고 공동 2위에 올라 이번 대회에서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김민규는 4라운드 최종 합계 50점으로 김한별(24)과 동률을 이뤘다.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바디 2점, 이글 5점, 파 0점, 보기 -1점, 더블보기 이상은 -3점을 부여해 합계 점수가 많은 선수가 높은 순위에 오른다. 김민규는 지난 11일 전북 군산 골프장에서 열린 KPGA 코리아투어 군산CC 오픈에서 2위에 오른 데 이어 2개 대회 연속 준우승을 달성했다. 김민규는 광주 평동초를 다니던 7세 때부터 골프를 시작해 '골프 신동'으로 불렸다. 초등 4학년 때부터 75-76타를 쳤던 그는 2011년 최경주 골프재단 '골프 꿈나무'에 선정돼 이경훈 프로의 원포인트 레슨을 받으며 주목받았다. 초등 6학년 시절인 지난 2013년에는 윈그(WING)컵 인터내셔널 챔피언십, 청소년연맹 회장배, 광주시교육감배, 초등연맹 회장배, 골드그린배, 녹색드림배, 추계 회장배, 박세리배 전국 초등학생 골프대회 등 8개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며 돌풍을 예고했다. 2015년에는 14세 나이로 국가대표에 선출돼 최연소 국가대표 선발 기록을 세웠다. 김민규는 2017년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골장 유럽프로골프 투어에 뛰어들었다. 16세 때 유로프로(3부) 투어에서 2차례 우승한 김민규는 2018년 유러피언 챌린지(2부) 투어 D+D 레알 체코 챌린지에서 최연소(17세 64일) 우승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까지 일본프로골프투어(JGTO)·유러피언투어 챌린지 투어에 오가던 그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코리아투어 2부 투어에 나섰다.

김민규가 세계 무대에 오르기까지는 어려운 생활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해 준 아버지가 있었다. 한 때 여행사를 운영했던 아버지 김진우(55)씨는 아들을 골퍼로 키워 길을 열어주겠다는 결심을 했다. 사업 실패로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썼다. 김씨는 가정 형편 때문에 김민규에게 전담코치를 붙여줄 수 없었다. 대신 광주 시내 연습장을 돌며 레슨 프로의 설명을 어깨너머로 듣거나, TV·인터넷 등을 통해 골프를 독학해 아들을 지도했다. 김민규는 새벽마다 아버지와 광천동 광주천변을 달리며 체력을 단련하고, 스윙연습을 했다. 광주시골프연습장에서 하루 8시간 가량 연습하며 실력을 키웠다. 광주천에 들어가 물살을 거스르는 '물장구' 스윙연습을 하기도 했다. 대회에 나갈 때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다른 선수 차에 편승하는 등 힘든 시간을 거처야 했다. 아버지는 이번 대회에서 김민규의 캐디를 맡으며 끈끈한 부자(父子) 관계를 보여주기도 했다. 김민규는 "아버지 생일(16일)에 우승을 선물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역경을 이겨내고 골프계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김민규가 '10대 돌풍'을 주도할지 주목된다. /유연계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값진 준우승'

태백산기 결승서 삼척시청에 분패  
광주도시공사핸드볼팀이 제17회 태백산기 전국 종합핸드볼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광주도시공사핸드볼팀은 19일 강원도 태백 세연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17회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 여자일반부 경기에서 삼척시청에 22-30으로 무릎을 꿇었다. 도시공사핸드볼팀은 종합전적 2승1패를 기록, 2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활약한 한승미는 우수 선수상을 받았다. 도시공사는 전반전 시작과 함께 강은서에게 첫 골을 허용하면서부터 삼척시청에 뒤지기 시작했다. 전반전을 삼척시청에 8점 뒤지며 8-16으로 마감한 광주도시공사는 후반전 반격에 나섰다. 후반전 11분 최지혜의 6m 슛을 시작으로 강경민, 김지현이 잇따라 골을 넣으며 17-20, 3점차까지 점수를 좁혔다. 하지만, 삼척시청의 속공전략에 무너졌다. 도시공사핸드볼팀은 1, 2차전에서 강팀을 차례로 물리쳐 주목받았다. 지난 17일 경기에서는 강호 대구시청을 28-19로 꺾었다. 이날 광주도시공사는 팽팽한 접전 끝에 대구시청에 1점차로 뒤지며 전반전을 10대11로 마감했다. 하지만, 후반에 강경민(CB)과 원선필(PV)을 내세운 공격과 수비가 살아나며 점수차를 벌린 끝에 9점차 대승을 거뒀다. 도시공사핸드볼팀은 1차전에서 SK를 30-27로 꺾고 산뜻하게 출발했다. SK는 지난 2019-2020 SK핸드볼코리아리그 우승팀이다. 오세일 감독은 "선수들이 오늘 공격과 수비에



광주도시공사핸드볼팀이 19일 열린 제17회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에서 준우승한 뒤 이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 제공>

서 실수가 잦아 전체적으로 경기를 풀어 가는데 아쉬움이 컸지만, 앞선 두 경기에서 가능성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며 "올 10월에 시작하는 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는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연계 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체고 김건우 화랑기 양궁 '금 명증'



최근 열린 화랑기 제41회 전국 시도대학 양궁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전남체고 선수들(왼쪽)이 3위를 차지한 순천고(오른쪽)와 시상대에 섰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단체전에선 은메달  
전남체고 김건우(3년)가 화랑기 양궁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건우는 단체전에서도 전남체고를 준우승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김건우는 지난 18일 충북 청주 김수녕양궁장에서 끝난 화랑기 제41회 전국 시도대학 양궁대회 남고부 리커브 90m 릴리피케이션에서 327점을 쏘 경복고 이선재와 함께 공동 우승을 차지했다. 송려명(전남체고 3년)도 김건우와 이선재에 한 점 뒤진 326점으로 동메달을 땀다. 김건우와 송려명의 활약으로 전남체고는 단체전

에서도 승전보를 울렸다. 전남체고는 남고부 단체전에 출전해 충북체고와 대전체고를 차례로 완파하며 4강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무거고등학교를 6-0으로 완파하며 결승에 진출한 전남체고는 결승에서 인천영선고에 아쉽게 4-5로 패하면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순천고는 4강전에서 인천영선고에 1-5로 패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재무 전남체육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전남 양궁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며 "힘든 훈련 환경을 이겨내고 좋은 성과를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계 기자 penfoot@kwangju.co.kr

## 탁구 차세대 에이스 조대성, 삼성생명에 등지

한국 남자탁구의 '차세대 에이스' 조대성(18)이 남자 실업 최강 삼성생명의 유니폼을 입는다. 16일 탁구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남 조대성과 계약서에 사인했다. 계약 기간은 차우 입대 기간을 포함해 7년이며, 현역 선수 중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대성은 창단팀 자격으로 우선 지명권을 보유했던 한국마사회와 계약 협상이 결렬된 뒤 복수의 실업팀을 두고 저울질을 해왔다. 그러나 선택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인

적·물적 인프라 모두에서 국내 어느 팀보다 나은 삼성생명이 자신을 세계 최정상급 선수로 키워줄 최적의 팀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삼성생명은 과학적인 프로그램으로 정령이 난 삼성트레이닝센터(STC) 등 최고의 훈련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조대성에게 강조했다. 무엇보다 조대성의 마음을 끌어당긴 것은 이상수, 조승민, 안재현 등 '배울 것 많은' 실력과 선배들과 매일같이 함께 훈련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일찍 '큰물'에 뛰어들어 최대한 빨리 성장하겠다

는 게 조대성의 복안인 셈이다. 이철승 삼성생명 감독은 "쟁쟁한 국가대표 선배들과의 내부 경쟁은 조대성의 성장에 큰 자극제가 될 것"이라며 "조대성이 한국 탁구의 기대치에 걸맞은 최고의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탁구 천재"로 불렸던 조대성은 2018년 종합선수권에서 역대 남자 선수 중 최연소로 단식 결승에 진출하며 한국 남자탁구의 차세대 에이스 재목으로 인정받았다. 2019년 체코오픈에서는 신유빈과 호흡을 맞춘 혼합복식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고, 올해 초에는 2020 도쿄올림픽 단체전 세계 예선에서 한국의 올림픽 출전권 확보에 힘을 보탤다. /연합뉴스

## 전남도체육회, 스포츠 인권 실태 조사

대학·직장팀·전락종목 등 대상  
전남도체육회가 대학, 전락 종목, 직장운동경기부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 실태 조사에 나섰다. 전남도체육회는 "도체육회 사무처 직원을 중심으로 조사반을 꾸려 전남도 내 운동부에 대한 스포츠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체육계 선수(성)폭행 사

건과 관련,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실시된다. 조사반은 직접 팀에 찾아가 선수들과 심층면담 및 설문지 작성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한다. 도체육회는 지난해 1월 개소한 '전남스포츠인권상담센터'에 인권침해 사례 등을 적극 신고하도록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스포츠인권 교육을 연중 권역별로 활성화하고, 인권침해 신고포상제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연계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반도
2관	반도, 담워터
3관	반도
4관	반도, 광주비디오: 사라진 4시간
5관	반도
6관	반도
9관	반도, 맛있는 녀석들
7관 씨네키움	밤샐: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비바리움 그레텔과 헨젤, 담워터
8관 씨네키움	#살아있다, 소리꾼, 결백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동화음악회**

GAC기획공연 - FOCUS  
동화음악회-책으로 흥을 뽐내

2020. 8. 25.(화) 11:00, 14: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No. 5**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53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250시리즈 - NO.5

2020. 8. 26.(수)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Prayer, 달의 춤**

광주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prayer, 달의 춤

2020. 8. 27.(목)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